

# 六堂의 文學에 미친 日本의 文藝思潮

임 종 찬\*

차 례

I. 서론

II. 啓蒙主義의 限界

III. 文化主義의 誤謬

IV. 결론

## I. 서론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한일합방까지의 시민적 지식인들이 전개해온 운동 양식의 시기적 구분은 개화운동기(1860년대~1893년), 개화개혁기(1894년~1903년), 계몽운동기(1904년~1910년대)로 나눈다고 할 때<sup>1)</sup>, 六堂 崔南善(1890년~1957년)은 계몽운동기에 등장하는 소위 계몽주의자요 문인이요 사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계몽운동기는 대내적으로는 반봉건, 대외적으로는 반제국주의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족자체의 일대 변혁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개화운동기나 개화개혁기에 있어서는 구학문에 바탕을 둔 독서층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다면 계몽운동기는 신학문을 접한 소장 독서층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다.

한국에 있어서의 계몽주의란 시대적 모순에 직면하여 이를 타파하기 위한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조동걸의 2인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下 (창작과 비평사, 1994). p. 14.

생존적 운동형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의 담당층은 보수적 기존세력으로부터의 도전과 외세의 제국화정책노선으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을 안아야 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므로서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계몽운동기에 있어서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오조약(1905년)이 체결되고 국권마저 빼앗긴 한일합방(1910년)에 이르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에서부터의 계몽활동은 어려운 측면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담당층 역시 신학문을 짧은 기간에 접함으로서 신학문 자체의 이해가 부진한 상태였고, 신진소장파가 범할 수 있는 신중성의 결여에서 오는 부작용 또한 우려되었던 시기였는데, 이것들이 현실로 나타난 시기가 바로 계몽운동기라 할 수 있다.

육당은 전통적 봉건가정에서 자랐고 봉건적 학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일본유학을 경험했다는 의미에서 당시로는 건문이 넓은 사람으로 일단 평가된다. 이러한 건문정도마저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문 시대였기 때문에 비록 16세 소년의 몸으로 신문화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담당하려고 나섰던 것인데, 그의 이와같은 용기와 결단이 놀랍다는 점에서는 일단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시대적 상황이 육당을 배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어린 소년이 막중한 과업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육당문학의 한계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육당이 지향한 정신세계가 문학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하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육당이 건설하고자 한 신문학이 무엇을 의미했고, 그것의 영향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피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문학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육당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리라 본다.

## II. 啓蒙主義의 限界

18C 유럽사회는 계몽주의에 의해 대대적인 사회변혁이 일어난 시기다. 오랜 전통의 누습을 타파하고 비리와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뉴우턴의 시발로 자연은恣意的인 힘에 의해 지배되거나 지탱되는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아닌, 자연법칙으로서의 존재임을 깨닫고부터는 이와같은 자연인식의 보편적 기본원리를 인간사회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성의 존중, 인권의 확보, 민주주의에 의한 인류의 진보를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여태 진행되어온 문명이라는 이름으로의 독단, 종교라는 이름으로의 미신적 권위의 탈피, 그리고 사변적 초월적 사상까지를 실험적 경험적 논리로 검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와같은 유럽의 계몽주의 정신은 유럽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로 번져나가게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유럽식의 계몽주의가 사회변혁의 動因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위와 가치가 절대자인 神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유럽식의 神觀이 우리에게서는 없었고, 종교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행세하지도 않았고, 자연과학적 인식으로 바라본 세계관이 성숙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계몽운동기는 대내적으로 볼 때 조선조 사회가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정치·사회·교육·문화의 근간으로 삼음으로써 경직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것의 모순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시기이고, 대외적으로 볼 때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침략주의자들의 위협 앞에 존립할 수 있는 현실안을 찾는 일<sup>2)</sup>과 찾은 현실안을 수행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겠다.

당시 육당은 비록 연소하였지만 주체적 평등적 인간관계, 합리적 사고의 인간유형을 창조해야만 대내외적 모순을 혁파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계몽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에 육당이 제일 먼저 착안하게 된 것은 내일의 주역인

2) 여기에는 崔濟愚의 東學思想, 李建昌의 陽明學, 朴殷植의 儒教求新論 등이 있다.

소년을 교육시키는 일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진적 방향에서의 사회변혁을 추구할 수 있고 민족적 에너지의 소실을 최소화하면서 문명사회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판단하였다. 그의 이러한 견해가 『少年』의 창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少年』을 창간하던 시기는 봉건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국가권력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 제국주의 침략이 감행되던 시기였다. 이런 급박한 시기에 육당이 소년층을 계몽하고자 한 것은 구학문체계보다 신학문체계의 이해와 세계문화사적 이해와 시대적 상황의 대처방안을 자각하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유럽의 많은 나라보다 앞서 1872년에 의무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신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제도는 고사하고 신식교육기관이 극히 적었고 신식교육기관조차도 외국 선교사의 노력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었다. 교육담당자 역시 절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육당은 교양잡지의 간행이야말로 단시일에 소년층을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점을 ‘不偏不局한 地位에 앉아서 普遍히 指導하는 일을 행함이 緊한 줄 알코<sup>3)</sup> 소년을 계몽하기 위한 잡지를 창간한 것이다.

나는 이 雜誌의 刊行하는 趣旨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한 마디 간단하게 말할 것은, ‘우리 大韓으로 하여금 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러 하면 能히 이 責任을 堪當하도록 그를 敎導하여라.’

이 雜誌가 비록 작으나 우리 個人은 이 목적을 貫徹하기 위하여 온갖 方法으로써 힘쓰리다.

少年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라. 아울러 少年을 訓導하는 父兄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여라.<sup>4)</sup>

이 글은 육당이 밝힌 『少年』發刊趣旨文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대한의 주역이 소년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도하기 위해 잡지를 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육당은 기성세대를 통해서는 현실타개가 어렵다고 느낀 것 같고 소년의 교육만이 타개책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3) 『六堂全集』(이하 「전집」으로 표기) 10 (현암사, 1974) pp. 135-136.

4) 「전집」 9, p.583.

극단적으로 육당은 생동하는 삶의 모습을 소년에게서 찾고자 하였고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는 '다 죽은 사람'으로까지 비추지고 있었다.

세상에 「산 듯하게 산다」, 「다 죽은 사람」이란 말이 있으니, 生理學上으로 怪異하게 여기지 않는도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떠한 경우에 쓰느냐 하면, 前者는 精力껏 활동하는 종류의 사람을 가르켜 이름이요, 後者는 그렇지 아니함을 이름인 듯 하다.

생각하건대, 생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시이란 것이 있는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시이고 무엇이든 있을 理가 없으며, 또 보건대 썩로우나 즐거우나 시는 반드시 생을 위하여 노력하니, 이 활동은 시이 시됨을 行함이라. 알페라, 활동은 生命의 反面이요, 활동이 停息하면 비록 生命은 保存할지라도 便同 價値 없는 것이다. 그런즉 前의 두 말이 俗話 法하되, 다른 편으론 또한 맛있는 말 아님이 아니로다.<sup>5)</sup>

이 글은 『少年』 3号 卷頭言(1909.3)이다. 그는 정력적 인간을 강조하였는데 정력적 인간은 삶을 창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역동적 인간형을 의미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의 태도는 신체시의 효시라고 하는 '海에게서 少年에게'에 나타나 있다.

- 1)  
 터...르썩, 터...르썩, 텍, 썩...아  
 나에게, 덜하다, 아니한 췌가,  
 只今까지, 업거던, 통괴하고, 나서 보아라.  
 秦始皇, 나팔문, 너희들이나.  
 누구누구 누구냐 너의 亦是 내게는 곱히도다.  
 나허구 겨르니 잇건 오나라,  
 터...르썩, 터...르썩, 텍, 튜르릉, 콧  
 - '海에게서 少年에게' 3연(『少年』 1号 1908.11) -

소년은 태산같은 높은 피, 집채같은 바윗돌마저 깨뜨릴 수 있는 위력의 소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인간사회의 가장 위력적 존재였던 진시황과 나폴레옹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패기와 용기를 불어넣는 데는 기여했지만 소년을 필요이상으로 과장하였다.

지상의 온갖 존재를 무찌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소년의 기상을 찬양한 데

5) 『전집』 9, p.583.

에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무찌르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소년상을 의도하였으므로 그가 말한 산듯하게 사는 인간형을 제시하였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무찌르고 위압하는 것으로서의 소년상에 그치고 정작 이룩해내어야 할 건설의 실상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위용이 가식적으로 그려지고 말았다.

—  
 검불째 걸은 저의얼골보아라  
 억세게덕근 저의손발보아라  
 나는놀고먹지아니한다는  
 標的아니냐  
 그들의 힘스줄은 특불거지고  
 그들의 뼈…대는 썩버러졌다.  
 나는힘드리난일이잇다는  
 有力한證據아니냐  
 율타율타果然그러타  
 新大韓의少年은  
 이러하니라.

二  
 全部의誠心 다드러힘기르고  
 全部의精神 다써知識느려서  
 우리는將次누를爲해무삼일  
 하라 하나냐  
 弱한놈 어린놈을 도울양으로  
 強한놈 넘어뜨려 「最後勝捷은  
 正義로 도리간다」 밝은理致를  
 보이려함이아니냐  
 율타율타果然그러타  
 新大韓의少年은  
 이러하니라.  
 - '新大韓 少年일부' (『少年』 二年 一卷 1909.11)

여기서는 소년의 위력적 모습을 구체화시켰고 위력을 행사할 바를 어느 정도 밝혔다. 약한 놈, 어린 놈을 도우고 강한 놈을 넘어뜨리는 것이 정의라고 했으니 소년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구체적 의미는 생략되어 있지만 당시 한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인물로서의 소년상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1)보다는 강한 이미지의 소년상을 그리고 있고 여

기에서야 앞서 말한 산듯하게 사는 방법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육당은 시가형태로서는 소년에 대한 자기 기대가 구체성을 띠기 어렵다고 생각해서인지 소년을 주제삼은 시가는 몇 편 試作하다가 말고 산문으로서 소년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계속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육당은 자기의 분수를 지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하여 세상에 있어 가장 崇敬할 人物은 英雄의 事業을 하든지 凡俗의 事業을 하든지, 一國의 宰相이 되든지 一村의 劊匠이 되든지, 자기의 能力이 미치는 대로를 다하고 자기의 筋力이 자라는 대로를 다하여, 쉬고 그치는 일 없이 자기의 分內事를 克盡히 하여 가는 사람인 줄을 깨달았노라. 한 번 다시 말하노니, 그러므로 그리스도·플라톤과 다아윈·와트의 才能이 있어 農夫나 劊匠이 되고 마는 것도 자기의 分을 지키지 아니함이요, 農夫나 劊匠밖에 못 될 것을 억지로 그리스도·다아윈 같은 사람이 될 양으로 애쓰다가, 이도 저도 못 하는 것도 자기의 分을 지키지 아니함이니, 다 옳다 할 수 없느니라.<sup>6)</sup>

이 글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꼬'(1909.2 『少年』 二年 二卷)의 일부다.

여기서 보듯이 육당은 작업에는 귀천이 없음을 자각시키려 하였고 어느 것이나 귀한 것이므로 자기 분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이가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것은 조선조사회에 통념되었던 계급적 의미의 사농공상이 직업적 의미의 사농공상으로 바뀌어졌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가유지발전은 개인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일깨우려 한 것이다.<sup>7)</sup>

둘째, 육당은 소년들이 뜻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諸者は 聰明한지라 모를 理 없거니와, 우리 祖先이 잠시 세웠던 뜻을 문지른 뒤로부터, 우리나라의 歷史는 辱에 辱을 더하고 恥에 恥를 곁하여, 드디어 오늘 같은 地境까지 到達하여, 보지 못할 일도 많이 보고, 참지 못할 일도 많이 참나니, 이것만 생각하여도 우리는 다른 나라 少年보다 한층 더 크고 깊게 세워서, 한층 더 바나하고 쾌한 일을 하여 한층 더 燦爛하고 煌赫한 光彩를 史上에 드리우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곧 우리의 千里길이요,

6) 『전집』 10, p.146.

7) 이러한 인식태도는 일찍이 實學派들에 의해 주창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사회 속에 팽배한 민권운동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바람에 이마를 뒹고, 깨끗한 곳에 다리를 쉬는 일이라. 슬프다 諸子여, 어떻게 하면 病없이 渴없이 間斷없이 갈길을 다 가고 할일을 다 하여 선 반죽과 몽그러진 떡이 아니 되겠소.

오오, 뜻을 세움이어, 오늘이 그때로구료. 여러분은 어떻게 뜻을 세우려 하시오. 알고 싶은 일ियो.<sup>8)</sup>

이글은 「少年時言」(1908~1910, 『少年』)이란 큰 제목하에 여러 개 작은 제목으로 나뉘어 연재된 글 중의 일부다.

조상들이 세웠던 뜻을 계승하지 못한 데서 역사가 왜곡되었고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는 논리이니 뜻을 굳건히 세워 국권을 회복하고 조상들의 뜻을 계승하도록 당부하고자 한 암시적 글이다. 그러나 무슨 뜻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말았다.

셋째, 육당은 소년들이 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들떠서 생각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들떠 가지고는 될 일이 없느니라.

오직 着實하라. 着實이 있는 곳에 功이 있고, 名이 있고 富가 있느니라.

허둥허둥하여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큰소리나 하고 虛스된 經綸이나 함을 英雄으로 알지 말지어다 - 종략 -

들뜬 사람은 몸을 망하고, 그러한 사람이 많은 나라는 나라가 망하나니, 국민된 者는 생각할지어다. 더욱 젊은 사람으로 들뜬 者야, 젊어서 들었으면 늙은 뒤에 깨달아도 좃출 수 없나니, 어텟어텟하지 말지어다. 더듬더듬하지 말지어다. 勳業과 事爲는 오직 착실한 후에 있는 것이니라. 그대가 만일 有爲의 인물이 되려할진대, 다만 착실하여라. 착실하게 계획하여라. 着實하게 經營하여라. 착실하게 進歩하여라, 착실로 始初하여 착실로 마칠지어다. 立脚地도 착실하여야 하며, 行進法도 착실하여야 하며, 目的處도 착실하여야 할지니라. 오직 착실이 너희를 英特하게 만들지며, 偉大하게 만들지니라.<sup>9)</sup>

여기서 착실하다 함은 실질을 숭상하는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근면을 행동 지표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는 해방후의 글 ‘眞實精神’(1954.9 새벽 창간호)에서도 ‘實學輕視에서 온 韓民族의 後進性’(1955.7 새벽)에서도 우리 민족은 진실, 착실한 바탕에서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데, 안일성과 형식성, 관공 사상과 문약폐풍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우리민족이 낙

8) 『전집』 10, p.114.

9) 『전집』 10, pp. 132-133. 이 책에서는 ‘著實’로 적었지만 이것은 ‘着實’의 오류인 것 같아 착실로 고친다.



천적 성격을 가졌는데 이것이 우리민족이 유약, 위축,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으로까지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지적은 언뜻 한국민이 수행해야할 당연한 생활 태도라고도 하겠는데 문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역경을 헤치고 국운을 바로 세운 역사적 사건을 교훈삼아 이 난국을 헤쳐나갈 용기를 불어넣어야 했음에도 해석에 따라서는 소년들에게 민족적 열등의식을 고무시키는 글들을 썼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점은 신채호가 쓴 글에서 발견되는 역사관 또는 문학의식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육당은 다른 글 속에서도 강연회에서도 소년에 대한 계몽을 부지런히 하였지만 대체로 위에서 지적한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어느 경우든 구체성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검열을 의식한 그의 글쓰기의 한계라고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자신이 민족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포기한데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sup>10)</sup>

이상에서 보았듯이 육당의 계몽주의는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도덕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틀은 육당이 도산 안창호를 만나고 부터 고착되었는데 이점에 대해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도산이 1909년 8월 청년들의 인격수양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청년수양단체인 청년학우회를 만들었을때, 육당이 발기인이었고 총무대리였으며 『少年』을 기관지로 삼았다.

도산은 1907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자강운동에 참가하면서 독립은 타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독립할 자격이 있는 후에라야 성취되는 것이요, 자기 힘으로 쟁취한 독립이라야 영구히 지닐 수 있는 독립이라 하여 우리가 독립할 자격이 있는 후에라야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1)</sup>

도산의 이러한 정신에서 신민회가 조직되었는데, 그 목적은 ① 민족의식과

10) 그는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 이 선언서는 독립을 위한 투쟁선언이 아니고 한국독립을 일제에 청원하는 내용이다. 그는 선언서를 기초하고도 민족대표로 서명하지 않았는데, 오세창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는 일생동안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11) 주요한, 『新訂版 安島山全集』(삼중당, 1971), p. 71.

독립사상 고취 ② 동지 규합과 국민운동 역량 축적 ③ 교육기관의 설치와 청소년의 교육 ④ 각종 상공업의 육성과 국민의 부력 증진<sup>12)</sup>으로 요약된다.

도산은 또 교육과 실업의 진흥에 앞서 동지들의 인격수양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청년학우회를 조직하였다. 취지문에서 밝힌 바로는 心力을 일치하며 지식을 호환하여 실천을 勉하고 전진을 策하기 위한 유지청년의 일대정신단으로 만들어졌고<sup>13)</sup> 구체적 목적은 한가지 가지 이상의 전문학술이나 기예를 반드시 학습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는 데 있다고 했다.<sup>14)</sup>

이렇게 볼 때, 도산은 실력양성론과 인격수양론으로 집약되는 계몽운동을 펼친 셈인데, 실력양성론은 저항이 아니라 실력양성을 통한 경쟁으로서 독립을 얻고자함이었고, 자본주의적 문명건설을 급선무로 인정하면서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우파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다.<sup>15)</sup> 인격수양론 역시 우리 민족을 근대적 시민으로 육성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었으므로 1920년대 이후 그가 주장한 민족개조론과 맞닿아 있다.

도산의 이같은 견해는 우리 민족의 자질과 바탕이 전근대적이라는 것과 열등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sup>16)</sup>

육당은 춘원과 함께 도산의 이같은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급기야는 민족을 배반하는 논리에도 응용하였다. 특히 육당은 춘원에 앞서 『少年』을 통해 실력양성, 인격수양을 계속 주장하였다. 그의 계몽주의는 대외적 모순의 혁파를 결행하기 위한 투지라기보다는 민주교양시민으로서의 자질획득에 초점이 모아진다고 하겠으므로 역사변혁의 일대전환을 요구하는 계몽주의자로서의 육당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sup>17)</sup>

12) 『이광수전집』 13 (삼중당, 1962), 「도산 안창호」 상권, pp. 28-29.

13) 『少年』 제2권 제 8호 p.14.

14) 주요한, 앞의 책 p.100.

15)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역사비평사, 1993), p.137.

16) 도산은 사회진화론적 측면을 신봉하고 있었고, 열등한 국민은 우등한 국민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도 받아들였고,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일제침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질이 열등한 데 있다는 인식이었다.

17) 일본에서는 維新 이래 외국 문명의 섭취를 왕성하게 전개하여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압도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軍事의 기술·장비의 근대화가 중심이 되고

### Ⅲ. 文化主義의 誤謬

19C 후반에 들면서 서구 열강들은 원료산지 확보와 잉여상품 판매를 위한 시장개척, 자본 투자지역 모색, 또 식민지 개척과 그것의 달성을 위한 군사기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급 자족적 자연경제 하의 봉건적 농업국가였으므로, 제국주의 침략의 위협에 직면하면서부터 자위수단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국가형태를 조형하기 위한 사상적 기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 당장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일제침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했다.

전자를 위해서는 ① 기존의 주자적 관념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 ② 기존의 정신세계를 현실에 맞게 조합 조정하는 것 ③ 급기시되어 왔던 관념체계를 구체계와 대체시키는 것 ④ 서구의 정신적 기반을 흡수해서 이를 독립준비로 활용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은 소위 衛正斥邪論 ②는 大宗教思想, 東學思想 ③은 陽明學 ④는 文化主義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후자를 위해서는 義兵運動, 종교의 교세 확장, 문화 운동의 전개 등을 들 수 있겠다. 육당은 ④의 입장에서 서 있었던 인물이다.

兩班病菌이 이렇듯 繁殖하고 兩班病毒이 이렇듯 彌漫하여 寸土分地도 餘閑이 既無하니 文明이 何處로 流入하며, 文明이 何處에 存立하리요. 吾人이 既往에 대하여 切齒하는 事 有하다 하면,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實로 我 舊文明의 花果를 凋落케 한 兩班思想이 몹시 跋扈한 것이며, 現在에 대하여 가장 通心하는 事 有하다 하면,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實로 我 新文明의 萌芽를 枯槁케 하는 兩班思想이 아직 肆毒함이며, 장래에 대하여 戰慄하는 事 有하다 하면, 다른 아무것도보다도 舊文明 蘇生과 新文明 創建에 가장 毒害될 兩班思想이 얼른 根絶되지 아니할까 함이니, 吾人의 心中에서 兩班思想만 拔去하면 剛勇이 人과 如할 것이요, 勤勉이 人과 如할 것이요, 文明의 活動과 文明上 建樹가 人에 過할지언정 人에 落하지 아니할 것이요, 現在 吾人의 憂患은 雲霧처럼 消散하고 장래 吾人의 希望은 旭日이 方昇함과 如할지니라.<sup>18)</sup>

산업이나 과학기술도 의학, 심지어는 예술에 이르기까지 軍事가 우선이었다. 六堂의 실력양성론은 高國인지, 強國인지, 이 둘을 합친 것인지 모호하고, 실력양성의 모범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18) 『전집』 10, p.167.

이 글은 '風氣革新論'(1915, 6 青春)의 일부다. 그는 양반들이 사회의 병독을 끼친 것으로만 여기고 양반병독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근대화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조선조 사회 속에서 양반들이 끼친 해독적인 면을 제거하면서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피서 이것의 계승을 주장한다든가 아니면 양반 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구조적 모순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양반을 병독 요인으로만 설명하였다.<sup>19)</sup>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족성에 대한 비판을 틈틈이 하였다.

獨逸을 論하고 美國을 遺한은 手를 攀하고 足を 忘한이니, 現代文明과 富強의 全體를 論하였다 못할지라. 獨逸의 세력이 온전히 노력에 由하였다 하면, 동일한 세력을 美國인들 何로써 致하였으리오. 禾穀은 耕種으로 得하는 것이요, 鱗介는 漁撈로 得하는 것처럼, 文明 富強은 勤勉 노력으로 得하는 것이 公理 大法이니, 美國의 富強이 有한 所以가 또한 一理의 發現일지라도.

- 中 略 -

然하다. 노력이니라. 노력일 따름이니라. 강렬한 生存意志로써 透徹한 生存努力을 위함이 有할 따름이니라. 現苦로 氣를 宿하는 일 없이, 外勢로 心を 亂하는 일 없이, 生存 盛榮의 大經 大法을 一遵하여 文明으로 實力으로 노력 邁往할 따름이니라. 浮念 虛慾에 유혹되지 않고, 薄志 弱行에 挫折되지 않고, 小事라도 正當히 노력하며, 賤役이라도 正성스러이 노력하여 坯土로 層臺를 築하려 하며, 一步로 千里까지 達하려 할지라. 卑微로부터 노력하며, 近易로부터 노력하며, 개인 개인으로 노력하며, 職分職分대로 노력하며, 濼習革祛에 노력하며, 勤勉性 훈련에 노력하며, 潛能喚起에 노력하며, 外障 除撤에 노력하며, 희생적 精神, 公共의 事業으로 노력하며, 高尚한 慾望, 眞善한 생활로 노력하며, 男子의 意氣와 丈夫의 本領으로 노력할 따름이니라.<sup>20)</sup>

이 글은 「努力論」(『青春』1917. 7)의 일부다.

독일과 미국이 선진 열강이 된 것은 노력의 결과로 보았고 우리 나라가 敗者가 된 것은 優勝劣敗의 이치에서 보면 노력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다. 예를 독일과 미국을 들었지만 日帝로 쉽게 대체되는 비유라고 할 때, 일제 침략이 자연스런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논리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19) 이것은 六堂이 中人家系의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분 콤플렉스가 작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 『전집』 10, pp. 185-188.

伊太利人이 勤勉으로써 新藝術의 基礎를 奠築할 시에 我는 懶惰로써 古文化의 原流를 壅塞하였으며, 和蘭人이 勤勉으로써 올란다派를 開創하고 西班牙人이 勤勉으로써 에스파니아派를 開創할 時에 我는 懶惰로써 扶餘, 高句麗 이래의 舊風古意까지 一并喪失하였으며, 반 다이크가 勤勉으로써 油畫를 開創하고 반 고안이 勤勉으로써 景致畫를 開創하고, 리베라가 寫生의 新境界를 拓하고, 클로드 로란이 畫景의 新機軸을 出하고, 코로가 自然派를 立하고 파주가 外光派를 立하고, 쿠루베가 寫實主義를 高唱하고, 와쓰가 理想主義로 力戰할 時에, 我는 懶惰를 神崇하고 근면을 鬼逐하여 率居의 物形으로 破壁을 補하고 李寧의 山水를 飢蠶를 飽하고 名匠의 事蹟은 水流雲空에 付하고, 神工의 痕跡은 風削 雨洗에 任하였으며, 레이놀스가 生하여 英國藝術의 勃興으로 하여금 雲蒸 霞蔚의 勢가 有케 할 時에, 我에 在하여는 擁護와 扶植은 고사하고 名蹟湮滅에 대하여 殘忍이 一如하였으며, 푸레르가 起하여 獨逸藝術의 地位로 하여금 九鼎 大呂보다 重케 할 時에 我에 在하여는 創新과 發展은 고사하고 國卒 喪絶에 대하여 等한이 一如하였으니, 人我 榮辱 금일의 差가 有함은, 곧 人我 勤惰 昔日의 因이 造하는 바라. 此 어찌 才不才에 由함이라 하랴. 運不運에 由함이라 하랴. 不才라도 勤勉하면 상당한 境界까지 發達하는 것이어든, 況 吾人의 才分이라. 不運이라도 機會를 導迎하기에 勤勉하는 人에게는 長留치 못하는 鐵案이 有함이라. 吾人이 往日의 不勤勉과 및 그 結果를 思하건대 冥치 아니하려하나 可得치 못하노니, 此로 由하여 失한것이 부분이 아니라, 全般이며 一이 아니라 皆로다. 何必 繪畫만 위하여 뜻하는 것이며, 何必 藝術만 위하여 뜻하는 것 이리오.21)

이 글은 「藝術과 勤勉」(『青春』 1917. 11) 의 일부다.

여기에서도 우리 민족은 근면하지 못한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예술의 대성을 이루지 못했고 예술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근면하지 못해 패자가 되었다는 요지를 밝히고 있다.

육당은 「風氣革新論」, 「努力論」, 「藝術과 勤勉」 등의 글에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게으르다는 것과 그로 인해 패자가 된 것은 당연한 법칙이라는 태도다. 즉 사회진화론을 한국 상황에 대입하여 설명하였다.

사회진화론은 개화기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사회적 배경을 잘 모르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실 적용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된 뒤 영국의 스펜서, 허슬리 등이 인간사회 속에 적용시킨 정치사상이었다. 동식물이 환경에 따라 적응하거나 진화

21) 『전집』 10, p. 196.

또는 도태했듯이, 서구사회가 산업혁명을 겪고 난 뒤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계급갈등이 첨예화되자 이를 무마하거나 계급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설득하기 위한 부르주아적 계급의 옹호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다시 제국주의의 침략을 호도하는 이론으로까지 활용되었다.

이 이론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유길준 같은 미국 유학생 또는 선교사의 가르침 및 그들의 글 그리고 일본 유학생과 일본서적 또 양계초 같은 중국 개화지식인들의 글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 시기의 대중화된 이론으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이론을 신봉한 나머지 우리나라에서는 자강운동이 일어났는데, 대한자강회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잡지나 신문에서는 優勝劣敗는 天然의 公例 또는 생존경쟁은 진화의 원동력으로 인정하여<sup>22)</sup> 各族이 경쟁하는 세계를 당하여 進하여야 강한 자가 退하여야 약한 자를 減함을 貲할 수 없다는 논리로까지 나아갔던 것이다.<sup>23)</sup>

자강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尹孝定도 “생존경쟁을 알지 못하면 개인의 노예의 수치를 면할 수 없으며, 국가는 판도의 색이 변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sup>24)</sup> 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한국민족 열등론이 깔려 있었는데 이런 주장을 획책한 것은 일제 지식인들<sup>25)</sup>과 선교를 빙자해 자국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선교사들<sup>26)</sup>이었다. 여기에 한국 지식인들이 편승하였던 것이다.

22) 『皇城』 1906. 11. 19. 논설. 1909. 4. 8. 논설.

23) 『大韓每日申報』 1908. 9. 27. 海雲者 「進歩하라 同胞여」.

24) 『自強會』 11호 pp. 4-7.

25) 여기에는 일본관학자들이 만들어 낸 소위 식민지사관을 예로 들 수 있고, 이런 이론이 대두되기 전에도 대한자강회 고문이었던 大坦丈夫는 한국인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시기심이 많다(『自強會』 2호, pp. 59-60)고 하였다. 大隈重信은 한국인들은 依賴主義로써 국시를 삼아 왔다(『大韓每日申報』 1909. 6. 20.)고까지 말했다.

26) 당시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은 야만 미개국이고 자신들은 문명을 전하러 온 使徒로 자처하였다. (그라스 단체브 著, 이기백 역, 『韓國現代史論』 일조각 1973. pp. 29-34) 그리고 그들은 온갖 이권에 개입하여 이득을 챙겼고, 금광 채굴, 철도 부설, 전화 가설, 관청 건물 건설, 발전소 건설, 전차 선로 건설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크게 치부한 인물들이 많았다. 대표적 인물은 알렌, 언더우드, 빈튼, 그레함 리, 마페트 등을 들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중석 저, 『한국근현대사의 민족문제 연구』(지식산업사, 1989), pp. 105-111 참조

육당은 정치사회의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의 측면에서도 우리문화는 열등하다고 느껴 문화의 진화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의 시와 시조, 가사를 창작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한국문학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형태인 신체시를 새로 창작하였다.

그가 처음 시도한 신체시인 '해에게서 소년에게', '꽃두고' 등의 작품들은 각 연거리 대응하는 행의 음수가 일치하고 또 통사적 공식구로서 대응하고 있고, 전렴후렴을 붙인 점 등에서 볼 때, 노래가사로서의 作風<sup>27)</sup>을 보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차츰 自由律을 나타내는 작품을 짓기도 했지만 自由律로서의 작품은 드물고 음수율을 엄격히 지키는 작품들이 많다. 음수율 또한 종래 못보던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音數律	작 품 명	
行	3.4조	千萬길 깊은 바다, 나는 가오	
	3.3.4조	막은 물	
	3.3.6조	새해깃봄	
	3.4.5조	少年大韓, 太白山과 우리, 世界一遇歌	
	3.3.3.3조	보배	
	4.4.조	黑驅者の 노래, 한훤생 스승을 울음, 저하늘	
	4.3.5조	太白山歌(1), 경부털도 노래, 압해는 바다	
	4.4.3조	아나나 네가	
	4.4.5조	가을뜻, 가난 배, 大韓少年行, 바다위의 勇소년, 크리스마스, 조상을 위해	
	4.4.4.3조	三面環海國	
	4.4.4.4.조	봄의 앞잡이	
	5.5.조	백성의 소래	
	律	5.5.5.조	모르네 나는
		5.4.4.3.조	太白山歌(2)
6.5.조		벌(蜂)	
6.6.조		길가는 일군	
7.7.조		우리 님, 생각한 대로, 關門潭 어린이 꿈, 물레방아, 새해, 鵬, 봄의 仙女, 나, 너름	
7.5.조		자라영감, 토끼생원, 흥부놀부, 새 선비, 옷나거라 똑딱, 나무군으로 신선, 남잡이가 지잡이, 아브라함 린커언, 나폴레옹	
10.11.조	밭벼래		
聯律		海에게서 少年에게, 新大韓少年, 舊作三篇, 꽃두고, 아나나 네가	
自山律		太白山賦, 太白山의 四時, 뜨거운 피, 太白의 님을 離別함, 나라를 떠나난 壽命, 花神을 贊頌하노라고	

27) 임종찬, 『개화기시가연구』(국학자료원, 1993), pp. 186-191.

여기서 보듯이 우리말의 통사구조 논리구조에 어긋나는 율격을 만들어 시험 했는데<sup>28)</sup> 이렇게 되고 보니 詩行과 시의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行과 行끼리의 의미 분화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고, 음수의 철저한 고집 때문에 언어가 폭력적으로 조합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둘째, 한국전통시가 장르를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킨 일이다. 여기엔 제일 먼저 시조 형식의 파괴를 들 수 있겠다.

3) 다부서 지는데에  
혼자성키 바랄소냐

금이야 갓슬망정  
버루는 버루로다

물은듯 단단한속은  
알이알가 하노라

- '짜진 버루의 銘' 전문 -<sup>29)</sup>

3)은 음보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육당이 시도한 시조는 이렇게 형태지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장	3	4	3(4)	4
중장	3	4	3(4)	4
종장	3	5	4	3

그러나 고시조에 있어서의 음수는 위와 같이 3이나 4로 고착되지 않고, 위치에 따라 3이나 4가 고정되지도 않는다. 이런 형태로 시조를 짓자 그의 뒤를 이은 노산, 가람 등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시조의 원형이 변질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시조의 형식이 위축되는 바람에 고시조에서 보여주었던 분방함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28) 앞의 책, pp. 191-197.

29) 「전집」 5, p. 466.



다음은 가사 형식의 파괴를 들 수 있다.

1

4) 우렁타게 토하난 汽笛소리에  
南大門을 등디고 쯤나나가서  
빨니부난 바람의 형세갓호냐  
날개가딘 새라도 못따르겄네

2

늘근이와 님은이 석겨안졌고  
우리네와 외국인 갓티타스나  
內外親疎 다갓티 익히디너니  
도고마한 판세상 덜노일윗네

22

인력거와 轎子가 둔비해잇서  
가고옴에 도곰도 어려웁업고  
精潔하게 꿈여는 旅館잇스니  
이는데개 日本人 營業이라네

23

이런일은 아모리 덕다하야도  
同胞生業 쇠함을 가히알디라  
그네들이 얼마나 달하였스면  
이것한아 保쫄티 못하게되오

- '경부털도 노래' 일부-30)

4)는 소위 7.5조의 율격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사다. 육당은 4)뿐 아니라 '世界一週歌', '朝鮮遊覽歌', '朝鮮遊覽別曲' 그리고 설화나 소설 속의 인물들을 가사화한 작품에까지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漢詩형식이나 일본 시가인 와카 하이쿠는 음수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 시가다. 그러나 우리의 시조나 가사는 음수의 고정미 없으므로 詩想을 포괄하는 힘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육당의 견해로서는 시조나 가사가 중국 한시나 일본 시가에 비해 정형시로서의 형식적 결합을 가진 것으로 보았던 모양

30) 『전집』 5, pp. 347-349.

이다. 우리시가를 우리 나름대로의 인식에서 보지 않고 외국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다.

셋째, 일본 시가를 형식면에서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까지 모방하려 했다.

그의 신체시는 신체시라는 말부터가 일본 것이고 일본의 『新體詩抄』에 실린 작품을 여러모로 흉내내었는가 하면 大和田의 '鐵道唱歌'를 모방하여 「경부철도의 노래」를 지었다고 하니<sup>31)</sup> 신문학의 출발이 일본 신문학의 아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지경이다<sup>32)</sup>.

그의 본격적 친일행각은 1928년 총독부 소속 조선사 편수위원회 위원이 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4)를 자세히 읽어보면 훨씬 그 이전부터 자신을 드러내었는데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4)에서 보듯이 경부선 철도가 한국인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국인을 위한 철도 가설인 양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2연에서 보듯이 우리네와 외국인 (여기서의 외국인은 일본인을 겨냥한 듯) 이 내외 친소가 없이 하나가 되는 세계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 4)의 22, 23연에서는 일본인이 여관을 정결하게 꾸며 놓고 영업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우리 동포들이 생업을 빼앗기게 된 것이라는 논리이므로 우리 동포들의 영업방법미숙만 나무라고 대신 일본인의 영업 방법을 찬양하듯이 그렸다.

그는 애써 '조선유람가', '조선유람별곡' 등을 지어 우리나라 명승고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명승고적의 역사적 의의를 살리려 하지 않았다.

세계일주가를 짓는 이유를 “此篇은 趣味로써 世界 地理 歷史上 요긴한 지식을 得하며, 아울러 朝鮮의 世界交通上 樞要한 部分임을 認識케 할 主眼로 排次”<sup>33)</sup> 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은 외국문물과 풍습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31) 박철석, 『한국현대문학사론』(민지사, 1990), pp. 371-376.

32) 그는 역사저술에서도 많은 문제를 남겼다. 그의 「不咸文化論」은 일제 관학자들의 滿鮮사관과 상통하고 있고, 1931년에 간행된 그의 朝鮮歷史는 서술체계가 식민지 사학의 비조인 일본사학자 林泰輔의 朝鮮通史에 자신의 지식을 첨가한 것이고, 해방직전에 간행한 故事通은 책세명부터가 일본근세 봉건제하의 新井白石이 쓴 古事通을 따오고 있고 체계가 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일본문화 수입상으로서 역할을 단단히 한 셈이다.

(서중석,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 연구』(지식산업사, 1989), pp. 284-285 참조)

33) 『전집』 5, p. 353.

육당은 많은 작품을 통해 소위 朝鮮心을 나타내려 하였지만 민족적 긍지를 느끼도록 하기보다는 자학적 열등적 의식 세계를 기저에 깔아버림으로써 창작의 의도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社會로 凝集性과 민족으로 결속력이 부족하여, 內로 실력을 향상함과와 外로 敵患을 彈撥함에 단합적 위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심히 박약하고, 일변 公的의 良心及 용기가 매우 결핍함은 아무 것보다 큰 국민적 低能의 表證이다. 조선의 역사는 七分이 內紛의 기록이요, 그 중에는 麗. 鮮의 末朝와 같이 內爭의 餘波가 外亂의 起因을 짓는 추악한 冊張도 二, 三分을 占하는데, 이는 毋論 그 非國民的 本質의 폭로로 본 것이다.<sup>34)</sup>

이 글은 「歷史를 通하여서 본 朝鮮人」(1928. 10.)의 일부다. 이처럼 그는 우리민족이 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춘원과 함께 민족주의자였지만 이 민족에 비해 결함이 많은 민족임을 누차에 지적하였을 뿐 민족 공동체의 의식 집합을 위한 노력 대신 의식집합을 오히려 방해하는 글들을 많이 썼다.

여기서 3)의 작품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겠다.

3)은 1922년에 간행된 『百八煩惱』의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작품이다. 백팔번뇌에 실린 작품들은 한결같이 그의 상투어 조선심을 담고 있지만 3)은 조선심과 거리가 멀다.

그는 3)에서 깨진 버루를 위해 변명하고 있다. 다 부서지는 때에 혼자 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다 부서지는 일도 없었을 뿐더러, 다 부서지더라도 홀로 부서지지 않고 남았어야 한다. 그리고 부서진 버루를 버루라고 강변하는 것도 수상쩍은 말이다.

깨어진 버루를 무른듯 단단하다고 하니 이 또한 회한한 논리다. '금이야 갔을 망정 버루는 버루'라는 논리는 친일파로 변신했지만 한국인이라는 논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춘원은 친일성을 나타내는 분명한 개념을 밝힌 글들이 많지만 육당은 개념이 불분명한 글들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그 말의 진의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3), 4) 등은 그 예에 해당한다. 육당은 보다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한 위장 문학을 많이 남긴, 문인답지 않은 문인이었다.

어찌보면 애초 그가 사회진화론을 신봉하였듯이 현실 여건에 재빨리 진화해

34) 『전집』 1, p. 87.

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족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육당이 증인가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개의 증인들은 현실 적응이 빨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양반 사대부 층에서는 일본 유학을 꿈도 꾸기 전에 일본 유학을 했다가 계몽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연하므로써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점 등이 오히려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IV. 결 론

육당은 계몽운동기에 등장한 계몽주의자요, 문인이요, 사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먼저 그는 계몽주의자로서 少年을 발간하여 소년층을 계몽 교육시키는 일을 하였다. 소년에게 패기와 용기를 불어넣는 신체시를 쓰기 시작하였고, 소년을 계도하는 산문을 많이 남겼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의 분수를 지켜 최선을 다할 것  
둘째, 뜻을 세울 것  
셋째, 착실할 것

이와 같은 논리로 집약되지만 구국 이념을 위한 투철한 역사의식의 강조 또는 대외적 모순의 효과를 위한 투지를 강조하지 않고 민주 교양 시민으로서의 자질 획득을 강조하는 측면을 나타내었다.

말하자면 그의 계몽주의는 철저하게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그의 계몽주의의 한계는 도산 안창호가 실력 양성, 인격 수양을 강조 하면서 민족 개조를 부르짖던 주장의 연장선에 육당이 서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육당은 문화주의자로서 자처하였다.

그는 많은 글을 통해 한국인이 문화적으로 열등한 민족임을 논증하면서 사회진화론에 따라 敗者가 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문화적으로 우수한 민족의 경

우를 따라야 하고 문화가 우수해야 독립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문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그는 세가지 방향에서 한국문학을 그르쳤다.

첫째, 한국문학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형태인 소위 신체시를 창작한 일이다. 그가 처음 시도한 신체시는 자유시라기 보다는 음수의 정확을 요구하는 노래가사 투였다.

둘째, 한국전통시가 장르를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킨 일이다. 여기에는 시조와 가사를 들 수 있는데, 그가 지은 시조나 가사는 모두 음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 전통 시조나 가사와는 다른 것이었다.

우리시가는 일본 시가에 비해 음수의 고정성이 없으므로 정형시로서의 형식적 결합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시가를 우리 나름대로의 인식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시가를 형식면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 모방하려 했다.

신체시라는 말부터가 일본 것이고, 그가 지은 신체시 중에는 일본의 『新體詩抄』에 실린 작품들과 닮아 있고, 일본인 大和田이 지은 「鐵道唱歌」를 모방해서 정부철도의 노래를 짓는 등 일본문학의 아류 같은 작품들을 남겼다. 또 민족적 긍지를 느끼도록 하는 작품보다는 자학적 열등적 의식 세계가 기저에 깔린 작품들이 많아 창작 의도가 의심스럽다.

넷째, 본격적인 친일행각을 벌인 1928년의 총독부 소속 조선사 편수위원회 위원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친일 성향을 보이는 작품들을 발표하여 민족정기를 그르쳤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친일성을 은폐시켜 왔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데에도 은유적으로 암시하였다.

육당이 중인가계 출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대개의 중인들이 현실적응과 자기 안위에 빠르다는 측면, 양반사대부층에서는 일본유학을 꿈도 꾸기 전에 일본유학을 했다는 측면, 계몽주의자·문화주의자로서 민족주의자언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고수했다는 측면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육당의 이와 같은 문학세계의 지향은 신문학 출발기에서부터 한국 민족문학의 정립을 위한 걸림돌이 되었고, 육당 뒤를 이은 문인들에게 적잖은 악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